

# 무안군 인구 전담부서 신설...“10만 조기달성”

### 인구정책과 신설·111사업 추진 청년 일자리 등 4대 분야 구성 육아나눔터 개소 양육 부담해소 “군민 체감 지원책 마련 노력”

무안군이 인구 10만 조기달성을 위해 인구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정책 등에 총 4540억원을 쏟아붓는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10만 인구 조기 달성을 목표로 인구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비상하는 무안’을 비전으로 한 인구정책을 수립해 총 11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4540억원 규모로 △인구 위기 대응 기반 강화 △청년·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 4개 중점 분야로 구성되어 추진된다.

인구위기 대응 기반 강화 분야에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 13개 사업 25억원이 투입돼 인구 현황 분석, 인식 개선, 정책 기반 마련과 같은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청년·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화합물반도체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 31개 사업 931억원의 사업비

로 청년창업 지원, 주거 안정, 고용 촉진 등 청년층의 실질적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이 진행된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에는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27개 사업 1321억원을 들여 보육·교육·출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양육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주 여건 개선 분야에는 오톱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 40개 사업 2263억원을 투입해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정주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개 중점 분야에 덧붙여 무안군은 생애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촉진에 나서고 있다.

무안에서 태어나면 출생축하금으로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은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출생기본수당으로 생후 12개월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320만원이 지원되고 첫째 자녀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원되며 출산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외에도 △영유아 보육료(1690만원) △부모급여(1800만원) △아동수당(108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1080만원) △교복비 및 졸업앨



무안군이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최근 개소했다. 무안군 제공

범비(112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등 다양한 교육비와 양육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확대하며 미래세대가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이유식 교실, 태교 프로그램, 마사지, 운동 교실 등 체계적인 모자보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출산 전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제1호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했고 도심과 대규모 아파

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5호점까지 확충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을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했다.

김산 군수는 “인구 정책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군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으로 ‘10만 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 18일 무안군 무안읍복지기동대원들이 관내 다문화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 무안읍복지기동대,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활동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복지기동대(대장 김용선)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무안읍 일대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무안119안전센터와 무안읍·환경면 의용소방대가 협력해 무더운 날씨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 가정의 환경 개선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복지기동대원들은 노후 벽지를 제거하고 도배·장판을 새로 했으며, 싱크대도 교체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소방시설 점검, 소화기 사용법 교육, LED 전등 교체 등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한 확보에 힘썼다.

의용소방대는 집 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약 3톤을 수거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무안=김행언 기자

## 목포시, 고향사랑기부 참여 이벤트

### 선착순 300명 커피 교환권

전라남도 목포시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목포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까지 신청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5000원 상당)이 제공된다.

기부자는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 추가로 커피 교환권까지 받을 수 있다.

일부 추첨 방식이 아닌 300명 한정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번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공식 누리집, SNS, 또는 전화(061-270-12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 ‘월간완독(月刊完讀)’ 1기 참가자 모집

### 진도군 철마도서관

전라남도 진도군 철마도서관은 온라인 독서 모임인 ‘월간완독’ 1기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월간완독’은 20일간 전문강사의 지도 하에 매일 정해진 분량의 독서를 한 뒤 기억에 남는 글귀와 단상을 단체 채팅방에서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혼자 읽기 어려운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도서들을 참가자들과 함께 읽으며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고 지역 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월간완독’ 1기는 7월1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며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군, 쇠’를 함께 읽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 까지 진도 철마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 「月刊完讀」

월간완독

신청기간 6.16.(월) 09:00 - 6.25.(수) 18:00

운영기간 7.1. - 30./ 22일 동안 참가대상: 진도군민 누구나(15명) 신청방법: 철마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1기 '총군쇠' 재러드 다이아몬드 저. 운영방식: 비대면(카카오톡 활용) - 함께 읽을 책을 구입/대출 - 전문강사의 안내로 매일 정해진 분량을 독서 - 인상적인 부분 발췌, 단상을 대화방에서 함께 나누기 - 월·금요일 진행/주말, 공휴일은 휴식 기타문의: 061.540.3068

철마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철마도서관(061-540-306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무안군, 상반기 대비 16명 증원

전라남도 무안군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3일부터 7월4일까지 모집한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상반기 대비 16명을 증원해 △공공근로사업 9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0명 등 총 124명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공공서비스 지원, 진료도우미 등 68개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학습과 돌봄도우미, 여성 원어민 강사 아동 학습지원 등 15개 사업에 배치되며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다.

참여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의 무안군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급 수령자, 타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7월25일경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참여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미래성장과 일자리팀(061-450-5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 강진군 ‘치매예방교실’ 운영 도암면 만년마을-강진읍 목리마을

전라남도 강진군이 오는 7월28일까지 치매안심마을 도암면 만년마을, 강진읍 목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 중이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 초빙 및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치매예방 교육 및 운동, 인지훈련과 웃음치료, 원예·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을별로 주 1회에 걸쳐 총 8회 과정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 치매선별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유소견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등 치매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도 이뤄진다.

강진군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암면 만년마을을 2019년 4월 치매안심마을 1호로, 강진읍 목리마을을 2022년 9월 치매안심마을을 2호로 지정 한 바 있다.

강진군보건소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교실 △치매환자 쉼터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061-430-5294),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 나아가 이웃 주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